



## 업계:

제조업

## 목표: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제조에 이상적 장소를 찾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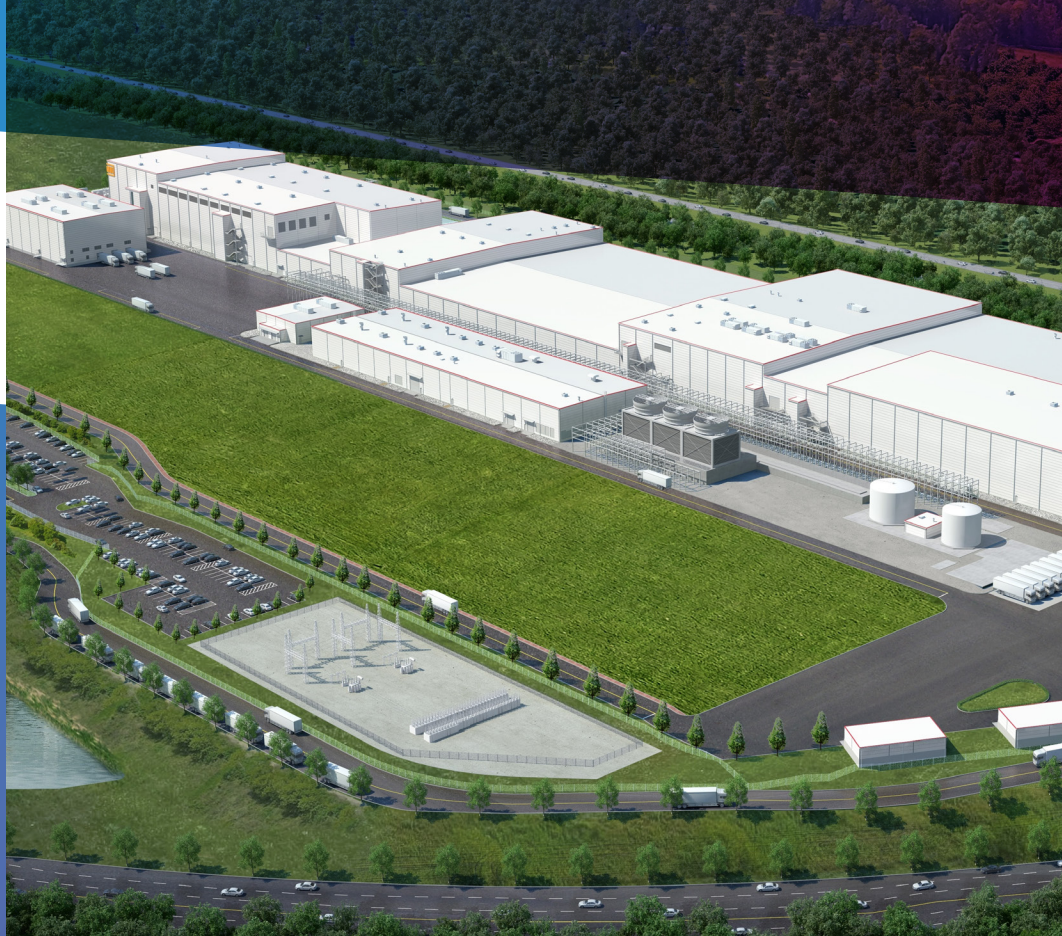
## 솔루션:

- 숙련된 인력
- 직원 교육
- 협력 문제 해결 -  
연방 & 지역
- 물류
- 인센티브

조지아주는 선진형  
제조분야에서 미국의  
10년간 GDP 성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Georgia.org/  
manufacturing](http://Georgia.org/manufacturing)



## 차세대 EV 배터리 기술 구축

충전 대비 주행거리의 효율을 이유로 전기 자동차의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향상된 EV 배터리의 성능을 보신 후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니켈의 양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좌우됩니다. 오늘날 전기자동차는 니켈이 50% 함량 된 배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니켈 비율을 늘리는 일은 차세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많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현재 니켈이 80% 함유된 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90%의 니켈이 함유된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계획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은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SK 이노베이션은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 벤츠에 더 나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결과로 2019년 올 해, SK 이노베이션은 16억 7천만 달러의 제조 설비 건설을 착공하였고 추후 2,000명의 인력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저희와 지속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저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에서 경험한 때때로 주(State)/시(City), 카운티(County)간 이해의 충돌을 조지아주에서는 겪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훌륭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로 합리적인 가격과 이상적인 위치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 민순성 과장 (배터리 사업 개발팀)



2020년도에 오픈할 예정인 SK 이노베이션의 30,900평의 공장시설은 주요 고객사를 그리고 I-85고속도로와 인접한 새로운 동남부의 자동차 산업단지인 Jackson County에 보금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인 조지아 퀵 스타트를 통해 숙련된 노동인력 제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기업들에게 조지아주 자발적인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로써 퀵 스타트 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업의 특화된 환경에 맞추어 기획됩니다.

**“조지아주는 [저희가 조사해 표본(주) 중] 이런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유일한 주입니다.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연결해 주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민순성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2019년, 에너지 연구기관인 BloombergNEF는 2040년에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57%는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승용차, 승합차, 트럭 그리고 SUV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며 조지아주는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미래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대 깊고 역사가 존재하는 관계

2018년 12월에 발표한 SK 이노베이션의 16억7천만 달러의 제조 설비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 개발 계약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지만 하지만 조지아주와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35년 전부터 조지아 주는 서울에 사무국을 설립하였고 한국과의 관계는 해를 거듭하며 깊어 졌습니다.

오늘날, 조지아는 한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몇몇 관련기관의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한국에 1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지아 주의 다섯 번째로 큰 수입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아 주 경제개발부에 오래 근무해왔으며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라고 SK 이노베이션을 조지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김윤희 차관보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깊은 관계를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We **SPEAK** Business